

##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age characteristics in Traditional Palaces of Korea,  
China and Japan

주저자 : 조은숙 (Eun-Suk Cho)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공동저자 : 박영순 (Young-Soon Park)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 2. 이론적 배경

- 2-1 이미지의 구성요소와 원리
- 2-2 건축 의장문화
- 2-3 한·중·일 삼국의 건축의장문화 특성
- 2-4 한·중·일 궁궐 특성

## 3. 연구 방법

- 3-1 조사 대상 선정 및 예비 연구
- 3-2 본조사

## 4.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한·중·일 궁궐 건축 이미지 표현어휘의 요인 구조
- 4-2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 비교

## 5. 결 론

### 참고문헌

### (要約)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표현 어휘를 활용하여 한·중·일 삼국의 이미지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조사도구의 선정과 이미지 표현 어휘 수집 및 추출을 위한 문헌 조사방법, 자유 연상 측정법, 그리고 설문조사 방법이 사용되었다. 조사도구로 사용된 한·중·일 궁궐 건축을 대표하는 사진으로는 한국의 창덕궁,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의 외부 5점, 내부 2점씩의 사진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47개의 어휘를 선정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중·일 궁궐 건축의 대표적인 이미지 표현 어휘는 장식성, 안정감, 개방성, 선적특성, 비친근성, 여성성 등 크게 6가지 요인 구조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궁궐 건축이 나타나는 이미지 특성을 종합하여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한 결과, 삼국의 공통적인 이미지 특성은 선적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이미지 특성으로는 안정감, 곡선적 특성, 여성성, 중국의 이미지 특성으로는 장식성과 직선적 특성, 일본의 이미지 특성으로는 단순성, 비친근성, 개방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일 삼국 궁궐 건축이

미지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국 고유의 이미지 특성을 규명함에 있어 궁궐의 외부와 내부에서 모두 나타난 안정감과 곡선적 특성을 한국의 주요 이미지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삼국의 이미지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볼 수 있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지리적인 영향과 문화적인 면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문화권에서 중간적, 매개적 문화의 입장으로 평가되었던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unique image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identify the Korea culture by comparing the imag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palac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is study identifies the unique image characteristics of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the image of three nations. Literature research, free association measurement, survey were conducted to select study objects and descriptive words. 5 outside-pictures and 2 inside-pictures of the *Changduckung*, *the Forbidden City*, *the Nijo castle* representing each country's traditional palaces were chosen as study objects. A questionnaire was made with 47 descriptive words and 5-scale measurement.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The representative words to express the image characteristics of Korea, China and Japan traditional palaces are adornment, stability, openness, lines, unfamiliarity, feminine.

This study researched the common and different factors between the image characteristics in traditional palac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common image is the image of line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Korea are stability, curved lines and femininity.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are adornment and straight lin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Japan are simplicity, unfamiliarity, and openness. Based on the research, it was found out that stability and curved lines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 This study researches the characteristics of imag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is study shows the common and different factors of image characteristics of in the neighboring three nations of East Asia. Due to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effect over a long time, the Korea was evaluated as the middle cultural between China and Japan. However, this study found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s image.

### (Keyword)

KOREA, CHINA, JAPAN, Image characteristic, Identical prototype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사회의 물질 중심의 가치가 21세기에 들어서 정신 중심의 가치로 이전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규정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세기의 물질 문명을 주도하던 서구 사회의 기능이 분산되고, 소외되었던 여타 문화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찾기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은 보이지 않는 경쟁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을 지칭한 동아시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과 이를 계기로 나타난 동양문화에 대한 잠재력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주목되기 때문이다. 한·중·일 삼국은 역사적으로 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밀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와 경제적 목적, 사회 구조적인 이질성 등으로 인해 심한 갈등과 대립도 겪어 왔다. 그러나 탈이데올로기의 시대와 무국경의 시대(Borderless times)를 맞아 한·중·일 삼국은 국가간 경쟁못지 않게 협력과 교류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으로(김홍석 외 1995; 박길성 1996)<sup>1)</sup>, 특히 중국과 일본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문화는 어느 나라의 문화보다도 중간항 문화, 매개적 문화(intermediate culture)의 특성을 보이며, 동아시아 3국으로 대표되는 한·중·일 3국을 상생의 문화로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 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요컨대 이러한 상생의 문화로서 한·중·일 삼국은 문화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다차원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 고유의 문화적, 사상적 특성이 중시되는 오늘날과 같은 다국적 문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자국의 정체성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를 통한 정체성 확립의 필요이다. 변화하는 세계 추세속에서 전통은 고정, 불변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명력을 갖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할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당위성을 갖으며,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적 정체성의 근거 역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을 담고 있는 언어가 없이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매우 제한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생각은 이미지를 요구하며, 이미지는 사고를 포함한다. 즉, 어떤 대상에서 이미지를 느끼는 것은 사고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고유의 정체성 파악에 있어서 이미지는 개념, 사고, 의식과 더불어 자기 보존, 자아 본질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지로서 남게 되며, 이러한 이미지는 형태, 색채, 재료, 공간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우리의 조형적

사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와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며, 우리 문화의 전통에 대한 분석이나 개념파악 역시 이러한 점에 바탕을 두고 연구되어야 한다.<sup>3)</sup> 각각의 조형 요소의 이미지는 조화를 이룰 때 그 대상물의 조형성과 미감이 상승하게 되며, 그 이미지속에는 어떠한 사고와 조형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와 같은 문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가 미래에 창조해 나갈 조형성 구축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지닌 이미지 특성 비교 연구를 통해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개념을 추출하여 우리의 전통 조형물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나름의 조형 언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한국 고유의 조형 이미지 특성을 규명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이미지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를 크게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였다. 우선 시간적 범위로는 동아시아 삼국이 서양이라는 외세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기 이전까지의 고유한 의상 요소들이 집약되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로서, 각국의 근세에 해당하는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시기들을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그 시기는 각각 중국의 명·청, 한국의 조선, 일본의 모모야마·에도 시대가 이에 해당한다. 공간적 범위로는 각국의 근세시기 동안 창건, 중건 또는 복원된 삼국의 대표적인 궁궐 건축물을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구체적 대상은 한국의 창덕궁,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이다. 이러한 궁궐 건축물은 그 특성상 다른 건축물들에 비해 그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고 권력자가 기거하였던 만큼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녹아있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조형물로 판단되는 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위 대상 건축물은 현재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류 보편의 문화재로서 연구 가치가 있음을 밝힌다.<sup>4)</sup>

## 2. 이론적 배경

### 2-1. 이미지의 구성요소와 원리

이른하임(R.Arnhem)에 의하면 이미지는 1차적으로 외부의 사물들을 마치 그림이나 사진처럼 기억 속에 표상 해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대상 물체에 대해 유발된 내적 표상 중에 그 대상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구조적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미지란 감각을 일으키는 자극원이 제거된 뒤에도 남아있는 감각의 기록으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체계가 인용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반면에 비언어적 이미지는 관례적, 사회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私的)인 정신과정으로 간주되어 창조적인 작업의 핵심이 된다.<sup>5)</sup> 즉, '이미지'란 우리의 '의식(마음)에 비쳐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형

1) 김홍석, 한·중·일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아시아 연구, 제 15집 부산대학교 아시아 문제연구소, 1997, p.215에서 재인용  
2) 이여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문학사상사, 2002, pp. 345-349

3)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 의식, 창지사, 1991, p. 128

4) UNESCO 세계문화유산 선정: 자금성(1987), 니조성(1994년), 창덕궁(1997년)

5) 홍승대, 실내공간의 이미지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통권 제33호 vol.12 No.4, 1999, p.245에서 재인용

태를 보거나 만들어낼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형성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며, 하나의 이미지란 시각적 감각에 의미를 부여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심상(心像, mental image)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특별한 의미를 가지도록 재구성, 즉 '형상화'는 이미지의 구성적 요소(design elements), 또는 시지각적 요소(visual elements)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이들을 합하여 '조형요소'라고 칭할 수 있으며,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지를 구성하는 조형요소와 원리는 점, 선, 면을 말하는 기본요소, 방향, 형상 및 형태, 명암과 빛, 질감, 크기와 휴먼스케일, 색채, 공간 및 매스와 볼륨을 말하는 구성요소 그리고 조화, 대비, 통일과 다양성, 반복, 리듬, 점이, 균형과 대칭, 비례, 질서규범, 강조, 구조 및 장식 등을 들 수 있는 구성원리로 구분되어 지며(신성영 2004), 이러한 구성요소와 원리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디자인요소들로서 조형언어라 불리워진다. 조형의 구성 원리란 곧 공간의 개념에 대한 인간의 시각 경험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 문화권은 그들의 고유한 공간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생활 공간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조형의 구성원리는 구성요소처럼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상호 유기적인 관계성을 지니며 총체적으로 건축의 조형성을 설명한다.

## 2-2. 건축 의장문화

건축의장(Architectural Design)이란 건축의 실용적, 미적인 행위를 창의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빛의 조절, 색, 질감, 크기 등 조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의해 특성 있는 공간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건축은 탄생된다. 즉, 건축의장이란 형태를 만들고 장식하며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으로서 공간을 인식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며, 목적에 부합되는 공간 미학을 위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건축이란 인간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이며, 공간의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단순한 도구의 개념을 넘어 인간의 삶 그 자체와 전적으로 관계되며, 여기에 건축 예술의 근원적인 힘이 있다. 즉, 건축은 예술 형상을 취하면서, 동시에 물질로서의 기능을 지닌 건축물로 건축의 형상은 건축사의 임의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여된 기능적인 요구와 구조, 재료, 시공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적 조건의 제약아래 창조되어야 할 의무를 띠며, 곧 그것은 건축이 지닌 역사, 문화적 배경과 형태, 즉 짜임새나 구조 등을 함께 아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은 그 시대의 거울로서 기후 및 풍토적 요소, 사회, 문화적 요소, 정치 및 종교적 요소, 재료 및 기술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 건축물은 재료의 차이에 따라 결구 방식이 다르고 완성된 형태도 다르며, 설사 동일한 재료와 결구 방식을 쓴다 하더라도, 나라와 지역, 민족에 따라 상이한 양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건축 전통 외에도 각 국가와 민족이 처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지세나 기후, 생활 습관, 종교, 예술 취향과 전통 같

6) 김춘일, 박남희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1, p.24

7) 허병이, 건축의장론, 광문각, 2001, p.100

8) 러우칭시, 이주노 옮김, 중국고건축기행1, 컬처라인, 2002, 머리말

은 다방면의 요인이 포함된다.9)

## 2-3. 한·중·일 삼국의 건축 의장문화 특성

한국, 중국, 일본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고유의 문화권을 형성하여 왔으며, 이러한 문화. 사상적 공통적 기반에 따라 건축물에서도 역시 공통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요소를 바탕으로 중국대륙으로부터 건너온 건축문화의 영향은 한국과 일본의 건축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한국과 일본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원시 문화와 전과되어 온 외래문화의 요소를 각국의 자연적 환경여건과 인문적 환경요건에 의하여 각기 다른 특성의 건축문화로 발달시켰다. 즉,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건축특성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윤장섭(1996)10)은 건축문화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중국은 대륙성(大陸性), 한국은 반도성(半島性), 일본은 도서성(島嶼性)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의 외형상에 있어서도 중국은 장중성(莊重性), 한국은 유려성(流麗性), 일본은 단순성(單純性)의 차이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건축의 색채면에 있어서 중국은 변화성(繁華性), 한국은 청초성(淸楚性), 일본은 농연성(濃艷性)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한 중국의 건축문화는 거대한 규모와 다양한 표현장식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바가 있으며, 기를진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건축문화는 단순하고 정교하며 그 표현에서 담백함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고, 한국의 건축문화는 기교가 적으며 순박하고 자연과 합일하는 느낌을 주는 특성이 있으며 대교약졸(大巧若拙)11)의 멋을 나타내는 점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 2-4. 한·중·일 궁궐 특성

### 2-4-1. 연구 대상의 선정 배경 및 의의

건축 문화에 있어서 왕이나 임금의 기거하였던 궁궐은 특정한 시기에 각 나라의 문화의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그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 기술과 조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고대로부터 인간은 원형의 모방과 전형적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세속적 활동의 영역을 신성화 했으며 성역을 중심으로 모방을 추구해왔다는 점을 상기할 때, 만약 사회적, 정치적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각 민족과 국민의 자연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근간이 되어 조성된 궁궐의 건축 조형이 민간에까지 그대로 모방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12)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 삼국의 이미지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각 국가의 모든 의장 요소가 응집되어 나타난 곳이며 그 특성상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궁궐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상 건축물의 시기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삼국이 서양이라는 외세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기 이전까지의 고유한 의장 요소들이 집약되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로서, 각국의 근세에 해당하는 시기들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중국의

9) 러우칭시, 이주노 옮김, 앞의 책, 2002, p.23

10)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p.8-9

11) 대교약졸(大巧若拙): "위대한 기교는 치졸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노자의 말에서 인용되었다.

12) 이현정, 전통궁궐 건축을 통해 본 한·중·일 의장문화 비교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p.83

명·청, 한국의 조선, 일본의 모모야마·에도 시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중국에서는 황제가, 한국에서는 왕이, 일본에서는 쇼군이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로서 각각의 최고 권력자가 거주·또는 통치의 목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으며, 명칭은 궁궐로 칭하며 그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에 중국은 명·청의 두 왕조가 함께 사용한 자금성이라는 궁궐이 존재했고, 한국의 조선 시대에도 법궁과 이궁들이 존재했으나 한 왕조가 국가를 장악하던 시기였으므로 궁궐 선정에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천황이 존재하는 궁이 있었으나 명목상의 존재가 거주하는 장소일 뿐이었고, 실제의 최고 권력자인 쇼군은 '성(城)'이라는 명칭을 가진 건축물을 사용하던 시기였다. 일본의 경우, 한 막부가 전국을 통치하고 있었으므로 막부의 최고 권력자가 거주하는 성은 단순한 영주의 성이었던 유럽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일본의 '성(城)' 역시 한국과 중국의 궁궐과 동일한 의미의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2-4-2. 조사 대상 공간의 개요

### 1) 한국의 창덕궁

창덕궁은 1405년(조선 3대 태종 5년)에 정궁인 경복궁의 동쪽에 이궁(離宮)의 성격으로 건립된 궁궐로, 조선초기에는 가끔씩 왕이 이어(移御)하여 사용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 중건(重建)된 이후부터 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창(重創)될 때까지는 왕이 정사(政事)를 보는 정궁으로 사용되었다. 창덕궁은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하며, 뒤로는 구룡을 두고 앞쪽에도 낮은 언덕이 있으며 좌우로 평지가 열린 모양으로, 전각배치에 있어서 경복궁과는 다른 독특한 양상을 띤다. 즉 지세에 적절히 대응하여 전각을 배치시켜 한국적인 궁궐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특징을 보이며, 전후관계나 대칭을 중시하지 않고 각 전각의 기능에 맞추어 터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열되어 있다.<sup>13)</sup> 이러한 유기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특성들은 창덕궁을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2) 중국의 자금성

1368년, 주원장이 원나라를 공격하여 명을 건설하고 남경에 도읍을 정했다. 이후 주원장의 4째 아들인 주체가 반란을 일으켜 1402년에 수도 남경을 공격, 왕위를 찬탈하고 연호를 영락이라고 하였다. 1407년, 그는 후작 진규와 공부시랑 오중을 북평으로 파견하여 북경의 성곽계획과 자금성의 설계를 맡겼다. 이 당시 원대의 수도였던 대도는 이미 일정한 도시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으며, "전조후시, 좌우오사"라고 하는 도성의 전통적인 배치계획개념은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명대 북경의 도시계획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도시 안의 도시를 만들으로써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군주에 걸맞는 궁궐, 즉 자색<sup>14)</sup>의 금지된 성이라 불리는 자금성이 탄생되었다. 자금성은 과거의 전통을 따랐고 전통적인 형식과 엄격한 좌우대칭을 취하였다. 주요 궁전은 남북향의 축선위에 안배되었고 보다 덜 중요한 건축물들은 그 좌우에 배치됨으로써 남에서 북으로 향하는 하나의 사합원을 형성하였다. 궁성의

13) 김동현, 서울의 궁궐건축, 시공사, 2002, p.86

14) 자색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색으로, 중국의 우주관에 따르면은 우주의 중심인 북극성의 빛깔을 의미한다.

실제적인 기능에 따라 앞쪽에는 황제가 정부를 처리하는 전조의 부분으로써 자금성의 주요 전당인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 등 몇 개의 대전이 집중되어 있다.

### 3) 일본의 니조성

니조성(二條城)은 1569년 '오다 노부나가'가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위해 지은 것이 시초이다. 지금의 니조성은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은 것으로 상락(上洛)<sup>15)</sup>의 행사를 할 기간 동안에 거주하는 거관(居館)으로 1602년에 건설하였다. 이 성은 크게 어전인 혼마루 고텐<sup>16)</sup>(중요문화재)과 내부가 호화스러운 니노마루 고텐<sup>17)</sup>(국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모야마 시대의 화려한 건축양식을 볼 수 있다. 니조성(二條城)의 니노마루 고텐의 전체평면은 안행형(雁行形)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앞쪽에는 연못이 있는 정원이 전개되어 있다. 혼마루 고텐은 궁전의 잔존건축물 중 남아 있는 유일한 것으로서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3. 연구 방법

### 3-1. 조사 대상 선정 및 예비 연구

#### 3-1-1. 사진 자료의 선정

한·중·일 삼국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 비교평가를 위한 예비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문헌자료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sup>18)</sup>을 이용해 한국의 창덕궁,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을 대표하는 외부와 내부사진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조사 사진 선정의 기준은 최고 권력자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殿)'의 외부와 내부 사진으로 한정하였다. 즉, 주요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된 정전(正殿), 일상업무와 정치를 논하는 편전(便殿), 휴식처로 사용하던 침전(寢殿) 공간의 외부와 내부 사진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진의 수를 각각 외부 5점, 내부 2점씩 총 21점으로 한정하였다. 즉, 외부의 경우 지붕부, 벽체부, 기단부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 구성부의 전체적인 이미지 파악을 위해 전면, 측면, 세부면으로 나누어 총 5점의 사진으로 구성하였다. 내부의 경우 현장촬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요 공간 내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문헌자료의 총 2점의 사진으로 대체하였다. 선정된 사진 자료는 [표3-1]와 같다.<sup>19)</sup>

15) 조라쿠: 將軍이 교토에 방문하는 것

16) 이조성 가장 안쪽에 있는 어전으로, 가을에만 개방된다. 하지만 지금의 건물은 1788년 화재로 전소된 것을 1893년 고토고쇼에서 옮겨온 건물이다. 그러한 이유로 무사적인 분위기보다는 우아한 공가풍의 건축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03년 4월 첫째주는 이조성 축성 400년 기념 행사 기간으로 특별 개방 기간이었음을 밝혀둔다.

17) 모모야마 시대의 무가풍 서원양식으로 지어진 대표적인 건물이다. 33개의 방과 800여개의 다다미로 이루어져있으며, 전국 다이묘들이 거처하는 방들이 계급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 또한 각 방에는 화려한 그림과 조각, 장식물들이 있는데 모두 일본을 대표하는 화가와 장인들의 솜씨이다. 계급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정해져 있고, 객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마루는 사람들이 마루를 밟을 때마다 새소리가 나서 누군가가 해당 구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쇼군을 지키는 무사들에게 알려준다고 한다.

18) 한·중·일 궁궐 건축의 현장 자료는 2003년 학술진흥재단의 <한·중·일 의정문화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팀이 현지에서 직접 촬영하였음을 밝힌다.

19) 사진자료 출처: 한국의 외부: 연구자 현지촬영  
한국의 내부: 장순용, 창덕궁, 대원사, 1990, p.24, p.47

[표3-1] 최종 선정된 사진 자료

		외부		
한국				
중국				
일본				
		내부		
한국				

중국의 외부: 연구자 현지촬영과 문헌사진을 혼합사용하였음.

李夏强机, 자금성, 2000, p.13

Ju,Ching-hua, Palace Architecture, Springer-Verlag, 1998, p.19, p.38

중국의 내부: 李夏强机, 자금성, 2000, p.41, p.65

일본의 외부: 연구자 현지촬영

일본의 내부: Doi Tsuguyoshi, Nijo-Castle, 1980, p.8, p.36

중국		
일본		

### 3-1-2. 어휘 수집

예비연구의 두 번째 단계는 의미분별 척도로 사용될 어휘의 수집으로, 어휘 수집을 위해서 문헌을 통한 어휘 추출방법과 사진을 보고 연상되는 어휘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자유 연상법 등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문헌으로부터의 어휘 수집은 한·중·일 삼국의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을 표현하는 어휘의 수집을 위해 각 국의 조형미와 건축미에 대해 서술된 관련 단행본, 학위 논문, 학술기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으로부터의 어휘수집 과정에서 대표적인 문헌을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각 국의 이미지 특성을 표현하는 어휘 추출에 있어 그 범위는 본 연구 대상 건축물의 시기에 해당하는 근세를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한 나라의 조형예술의 시기와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 각 국의 조형정신의 형성이 각기 시대나 지역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특색을 달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통된 조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근세를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여도 삼국 고유의 조형성을 표현하는 어휘 추출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였다. 둘째, 형용사 어휘 수집을 위한 분야는 크게 회화, 공예의 미술사 분야였으며, 특히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한 건축사 위주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수집된 어휘의 수는 한국의 경우 124개, 중국의 경우 191개, 일본의 경우 129개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을 표현하는 어휘가 다소 많이 수집되었다. 또한 이들 세 나라의 어휘를 통합하여 빈도를 표시하여 정리하였더니 총 298개의 어휘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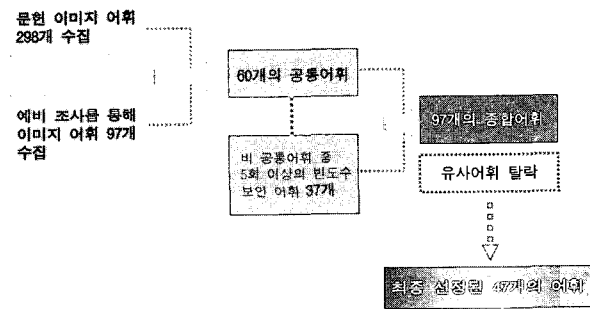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을 표현하는 어휘 수집의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유 연상 측정법을 사용하였다. 즉, 한국의 창덕궁,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의 외부와 내부를 나타낸 칼라 사진을 항목에 따라 보여주면서, 각각의 사진에 대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 어휘를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자유 연상 측정법의 시기는 2004년 3월 12일에서 17일까지였으며, 대상은 Y대학 생활디자인 전공 대학원생 15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97개의 어휘가 수집되었으며, 이 조사에서 5회 이상의 빈도수를 나타낸 어휘는 '고급스럽다', '고풍스럽다',

‘깨끗하다’, ‘단순하다’, ‘단아하다’, ‘딱딱하다’, ‘섬세하다’, ‘시원스럽다’, ‘웅장하다’, ‘장식적이다’, ‘정교하다’, ‘정적이다’, ‘직선적이다’, ‘편안하다’, ‘화려하다’ 등으로 정서성과 장식성 차원의 어휘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문헌을 통해 수집된 어휘와 예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어휘를 비교하여 공통 어휘 60개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락한 어휘 중 그 빈도가 5회 이상으로 나타나 삼국의 이미지 특성을 표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휘는 최종적인 어휘선정에 다시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어휘는 97개로 압축되었다. 그러나 추출된 97개의 어휘들이 척도로 사용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고, 유사 의미를 지닌 어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어휘들 중 출현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빈도가 낮은 어휘를 탈락시키는 방법과 전문가 3인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어휘의 수를 최종 47개로 축소시켰다. 이러한 여러 단계의 종합과 탈락 과정을 거쳐 최종 47개의 어휘가 한국, 중국, 일본의 궁궐 건축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어휘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어휘추출 과정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형용사 이미지 어휘 종합 선정 과정



본조사에 사용될 최종 47개의 어휘들은 기존 선행연구(이연숙, 유영희 1986, 박영순, Guerin 1992, 이윤정 1995, 안지윤 1998)<sup>20)</sup>를 참고하여 어휘의 요인영역을 구분하였다. [표3-2]

### 3-2. 본조사

본 조사에서는 문헌과 예비 조사를 통하여 최종 추출된 47개의 어휘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각 어휘마다 5점 척도를 두어 느낌의 판단 정도를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느껴진다(2점), 약간 느껴진다(1점), 모르겠다(0점),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1점), 느껴지지 않는다(-2점)로 분류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0대, 30대, 40대의 남·녀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 직장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전공구분에 있어 디자인 계열과 비 디자인계열로 구분하였다. 디자인계열의 경우 전공은

20) 이연숙, 유영희, 이조시대 사랑방 가구에 대한 현대인의 미의식, 대한가정학회지, 1986  
 박영순, Guerin, 실내환경의 색채의미 연구를 위한 도구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0(4), 1992  
 이윤정, 한국 주택의 실내디자인 이미지 유형 및 특성 분석,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5  
 안지윤, 한국과 일본 전통 주택의 조형성에 대한 의식조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8

[표3-2] 본조사에 사용될 최종 선정 47개의 어휘

특성	이미지 표현 어휘	특성	이미지 표현 어휘
공간성	자유스럽다(15) 시원스럽다(7) 다양하다(15) 대담하다(8) 가볍다(5) 답답하다(2) 평면적이다(3) 복잡하다(14) 웅장하다(19) 위엄있다(5)	정서성	단아하다(12)
			담백하다(13)
			은은하다(6)
			깨끗하다(12)
			스박하다(16)
			부드럽다(23)
			따뜻하다(9)
			편안하다(9)
			곡선적이다(17)
			발다(8)
장식성	간결하다(14) 단순하다(30) 직선적이다(17) 장식적이다(14) 정교하다(25) 화려하다(49)	심미성	고풍스럽다(5)
			고급스럽다(6)
			신비스럽다(7)
			미묘하다(5)
			우아하다(17)
질서성	대칭적이다(5) 안정감이 있다(11) 자연스럽다(22) 통일성이 있다(8) 조화롭다(6) 선명하다(11)	남성·여성성	강렬하다(12)
			역동적이다(4)
			여성적이다(7)
			세련되다(15)
			우아하다(17)
			미묘하다(5)

생활디자인, 주거 환경, 건축, 의상 전공으로 다양성을 나타내었고, 비디자인 계열 전공은 공대와 상대 계열로 구성되었다. 조사 기간은 2004년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배포된 총 208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203부(디자인계열 132부, 비디자인 계열 71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표현 어휘의 요인구조 파악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sup>21)</sup>하고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진 각 어휘별과 요인별 평균치 간의 차이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법(One Way ANOVA)<sup>22)</sup>를 통한 F-test를 실시하였다. F-test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인들에 대해서는 집단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후검증 방법으로 던컨의 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적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21)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수집된 많은 변수들을 유사한 항목(공통자원)들끼리 묶어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시키는 분석방법  
 22)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은 두 집단 또는 그 이상간 하나의 검정(종속)변수에 대해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는데 이용한다.

#### 4.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한·중·일 궁궐 건축 이미지 표현어휘의 요인 구조

한·중·일 궁궐 건축 이미지 표현 어휘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나라의 구분없이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해 요인분석하고, 요인 부하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각회전 중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고유치(eigenvalue)<sup>23)</sup>는 1.0을 기준으로 하였다.

외부의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0이상인 최종요인 5개가 추출되었다. 각 요인이 차지하는 분산의 비율을 살펴보자면, 요인1은 32.158%, 요인2는 10.038%, 요인3은 8.404%, 요인4는 7.265%, 요인5는 6.185%로, 이 5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누적 설명력은 64.052%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한·중·일 궁궐 건축의 외부 이미지 표현 어휘는 20개의 단어로 압축되었다.

내부의 요인분석 결과, 외부와 마찬가지로 고유치 1.0이상인 최종요인 5개가 추출되었다. 각 요인이 차지하는 분산의 비율을 살펴보자면, 요인1은 20.532%, 요인2는 16.910%, 요인3은 14.901%, 요인4는 10.984%, 요인5는 8.803%로 이 5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누적 설명력은 72.129%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한·중·일 궁궐 건축의 내부 이미지 표현 어휘는 12개의 단어로 압축되었다. 외부와 내부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4-1] [표4-2]과 같다.

[표4-1] 한·중·일 궁궐 건축의 외부 이미지 표현 어휘 요인분석

이미지 표현 어휘	요인(Factor)					공유치 (Communalities)
	F1	F2	F3	F4	F5	
화려하다	.839	.150	.015	.092	-.119	.750
장식적이다	.797	.104	.051	.050	-.117	.666
웅장하다	.792	.190	.044	.013	.221	.714
복잡하다	.787	.023	-.007	.085	-.042	.629
강렬하다	.766	.143	.022	-.011	.005	.608
대담하다	.739	.018	.186	-.066	.237	.642
단순하다	-.735	-.041	.224	-.165	.217	.667
간결하다	-.727	.056	.349	-.042	.186	.689
위엄있다	.720	.277	.044	.071	.210	.646
담백하다	-.691	.250	.205	.148	.123	.619
단아하다	-.651	.310	.117	.197	.080	.578
대칭적이다	.223	.771	-.093	-.109	-.058	.668
안정감있다	.006	.766	.083	.014	-.081	.601
시원스럽다	.055	.114	.829	-.060	-.090	.715
자유스럽다	-.125	-.103	.824	.147	-.049	.730
곡선적이다	.094	.121	.091	.792	.027	.659
직선적이다	.050	.290	.029	-.776	.073	.694
어둡다	.035	-.227	-.142	-.125	.669	.536
미묘하다	-.017	.151	.009	.222	.611	.446
차갑다	-.155	-.161	-.016	-.406	.581	.553
고유치 (Eigen value)	6.432	2.008	1.681	1.453	1.237	
% of Variance	32.158	10.038	8.404	7.265	6.185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23) 고유치는 각 요인이 기존 변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요인에 대한 표준화된 분산.

[표4-2] 한·중·일 궁궐 건축의 내부 이미지 표현 어휘 요인분석

이미지 표현 어휘	요인(Factor)					공유치 (Communalities)
	F1	F2	F3	F4	F5	
웅장하다	.899	.051	.001	.001	.104	.821
위엄있다	.884	.021	.080	-.019	.111	.800
화려하다	.568	-.390	.192	.289	-.089	.603
단아하다	.036	.893	.114	.067	.048	.819
담백하다	-.058	.893	.075	.039	.108	.820
대칭적이다	.108	.027	.812	.016	-.012	.671
안정감있다	.067	.229	.694	.204	.103	.591
직선적이다	-.019	-.059	.645	-.403	-.051	.584
여성적이다	-.074	-.055	.130	.855	-.058	.759
곡선적이다	.207	.187	-.180	.734	.240	.707
자유스럽다	-.008	.056	-.094	.180	.833	.738
시원스럽다	.177	.105	.144	-.077	.821	.743
고유치 (Eigen value)	2.464	2.029	1.788	1.318	1.056	
% of Variance	20.532	16.910	14.901	10.984	8.803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또한 요인분석의 요인이 동질적인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Rea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부의 경우, 요인1의 크론바하의 알파 값<sup>24)</sup>은 .924, 요인2의 알파값은 .606, 요인3의 알파값은 .623, 요인4의 알파값은 .563, 요인5의 알파값은 .320으로 나타났다. 내부의 경우, 요인1의 크론바하의 알파 값은 .744, 요인2의 알파값은 .830, 요인3의 알파값은 .581, 요인4의 알파값은 .585, 요인5의 알파값은 .59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0.6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 관례로, 본조사의 요인들이 갖는 신뢰도는 대체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표현 어휘의 요인은 외부와 내부 각각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 며, 이들의 요인명은 외부의 경우 요인1은 장식성 요인, 요인2는 안정감요인, 요인3은 개방성 요인, 요인4는 선적특성 요인, 요인5는 비친근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내부의 경우 요인1은 화려함 요인, 요인2는 단순성 요인, 요인3은 안정감 요인, 요인4는 여성성 요인, 요인5는 개방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평가의 요인 구조는 요인이 나타난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외부의 경우 장식성이 첫 번째 요인으로 인지되었으며, 내부의 경우에서도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에서 화려함과 단순성의 장식성 요인이 인지되었다. 외부와 내부의 차이점은 외부에서는 화려함과 단순성이 하나의 장식성의 요인구조로 파악된 반면, 내부에서는 화려함과 단순성이 다른 구조로 파악되어 내부를 볼 때는 화려함과 단순함이 서로 반대된 개념이라기보다 각기 다른 차원의 니앙스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부와 내부 모두 장식성의 요인이 상위의 요인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권위적인 공간특성을 지닌 궁궐 건축이 주거 건축에 비해 과도한 장식적 요소에 의한 표현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하

24) 크론 바하의 알파 값: 신뢰도 분석의 계수의 하나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테스트의 내적인 일관성, 즉 테스트의 문항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되어 지는 크론 바하의 알파 값이 .60이상이면 일반화 할 수 있다.



며, 이는 궁궐 건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외부와 내부 모두 화려한 장식요소 사용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외부의 경우 세 번째 요인인 개방성은 내부에서는 다섯 번째 요인으로 인지되어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으며, 외부가 내부에 비해 안정감과 개방성이 중요하게 인지됨을 알 수 있었다. 외부와 내부의 네 번째 요인에서는 선적특성 요인과 여성성이 인지되었으며, 내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비친근성의 요인이 외부의 다섯 번째 요인으로 인지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표현 어휘의 요인 구조는 나라에 상관없이 각 요인에 포함된 어휘들이 비친근성, 선적특성, 여성성을 제외하면 거의 유사한 양상을 띄우고 있었으나, 외부와 내부 별로 요인이 나타난 순서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외부와 내부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이미지 특성 표현 어휘의 요인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외부와 내부의 요인별로 분류한 결과 [표4-4]와 같이 정리되었다. 어휘들은 크게 장식성, 안정감, 개방성, 선적특성, 비친근성, 여성성의 6개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각 어휘들에 의해 평가된 점수는 이와 같이 특성별로 분류하여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표4-4]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한·중·일 궁궐건축의 이미지 요인구조

궁궐 외부의 요인 구조				궁궐 내부의 요인 구조			
요인	이미지 표현어휘	요인 부하치	eigen value	요인	이미지 표현어휘	요인 부하치	eigen value
요인1 장식성	화려하다	.839	6.432	요인1 화려함	웅장하다	.889	2.464
	장식적이다	.797			웅장하다	.889	
	웅장하다	.792			위엄있다	.884	
	복잡하다	.787			화려하다	.568	
	강렬하다	.766					
	대담하다	.739					
	단순하다	-.735					
	간결하다	-.727					
	위엄있다	.720					
	담백하다	-.691					
단아하다	-.651						
요인2 안정감	대칭적이다	.771	2.008	요인2 단순성	단아하다	.893	2.029
안정감있다	.766	단백하다		.893			
요인3 개방성	시원스럽다	.829	1.681	요인3 안정감	대칭적이다	.812	1.788
	자유스럽다	.824			안정감있다	.694	
					직선적이다	.645	
요인4 선적특성	곡선적이다	.792	1.453	요인4 여성성	여성적이다	.855	1.318
	직선적이다	-.776			곡선적이다	.734	
요인5 비친근성	어둡다	.669	1.237	요인5 개방성	자유스럽다	.833	1.056
	미묘하다	.611			시원스럽다	.821	
	차갑다	.581					

## 4.2.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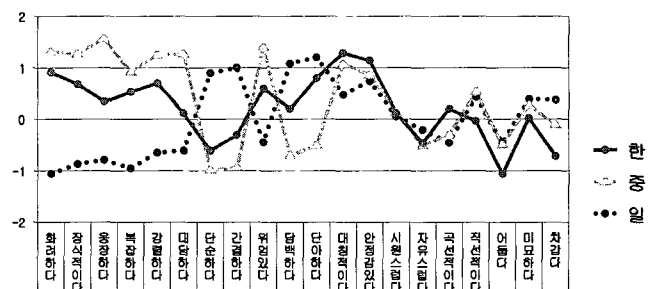
### 4-2-1. 외부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어휘별 척도를 통해 각 나라 별로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삼국의 이미지 특성을 알아본 결과, 먼저 외부의 경우 '시원스럽다'를 제외한 전반적인 어휘

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화려하다', '장식적이다', '웅장하다', '복잡하다', '강렬하다', '대담하다', '위엄있다' 등의 어휘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 궁궐 건축의 외부 모습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화려한 장식과 복잡하고 정교한 문양, 웅장하고 거대한 건축 규모가 강렬하고, 대담하며, 위엄있는 모습으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단순하다', '간결하다', '담백하다', '단아하다' 등의 어휘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 궁궐 건축의 외부 모습이 중국과 한국에 비해 단순하고 간결하고 단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칭적이다', '안정감 있다' '곡선적이다' 등의 어휘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중국과 일본은 비슷한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한국 궁궐 건축의 외부 모습이 두 나라에 비해 공간성에 있어서 대칭적이며, 안정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선적인 특성에 있어서 직선보다는 곡선적인 것으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이는 문헌 고찰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연한 선을 기조로 하여 구성된 지붕의 처마 곡선미는 한국 건축 및 조형 예술의 전통미를 나타내며, 이는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한국 건축의 조형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자유스럽다'의 경우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일본 궁궐 건축의 외부 모습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개방적인 모습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직선적이다'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의 궁궐 건축의 외부 모습이 곡선보다는 직선적인 것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어둡다', '미묘하다' '차갑다' 등의 어휘에서는 한국에 비해 일본과 중국이 비슷한 분포도를 보이며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일본과 중국 궁궐 건축의 외부 모습이 한국에 비해 어둡고, 미묘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은 특히 일본 예술문화에 자리잡고 있는 일본 특유의 미의식 사상과도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볼때, 외부 이미지 표현 어휘는 '화려하다', '장식적이다', '웅장하다', '복잡하다', '강렬하다', '대담하다', '단순하다', '간결하다', '위엄있다' '담백하다', '단아하다' 등의 장식성 차원의 어휘에서 가장 큰 평균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삼국 궁궐 건축의 외부를 볼 때 장식성의 차원을 보다 높게 인식하며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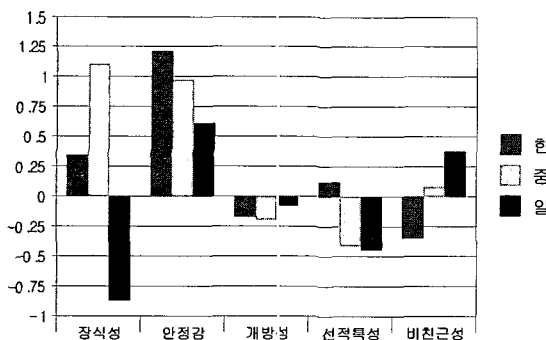
[그림4-1] 한·중·일 궁궐 건축 외부 이미지 표현어휘 차이의 운곽



이러한 이미지 어휘별 평균 비교를 바탕으로, 요인별 평균의 점수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외부의 경우 개방성(F=0.839, 유의확률=0.433)의 차원에서는 삼국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을 제외한 장식성(F=542.610, p<.05), 안정감(F=26.453, p<.05), 선적특성(F=20.672, p<.05), 비친근성(F=35.794, p<.05)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장식성, 안정감, 선적특성, 비친근성의 요인에 대해서는 Duncan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식성에 있어서는 중국>한국>일본의 순으로 중국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삼국 중 중국 궁궐 건축의 외부 모습이 가장 화려하고 위협한 모습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안정감에 있어서는 한국>중국>일본의 순으로 한국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궁궐 건축의 외부 모습이 삼국 중 가장 안정적이고 대칭적인 것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개방성에서는 삼국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삼국의 궁궐 건축 외부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선적특성에 있어서는 한국>중국>일본의 순으로 안정감과 함께 한국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중·일 문화의 성격을 규정짓는 의미로 자주 거론되는 '중국의 형태, 한국의 선, 일본의 색채'의 의미와 같이 한국 문화의 선적 특성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고유한 한국의 이미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친근성에 있어서는 일본>중국>한국의 순으로 일본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 궁궐 건축의 외부 모습이 한국과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호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4-2] 한·중·일 궁궐 건축의 외부 이미지 평가 차원의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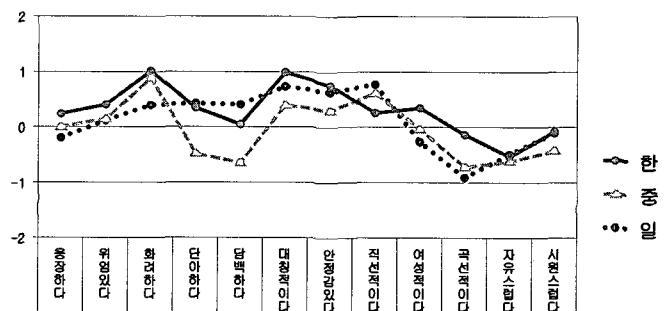
#### 4-2-2. 내부

내부의 경우, '자유스럽다'를 제외한 전반적인 어휘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웅장하다', '위엄있다', '화려하다' '대칭적이다', '여성적이다', '곡선적이다' 등의 어휘는 대체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화려하다'의 경우 일본에 비해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한국과 중국 궁궐 건축의 내부 모습이 일본의 내부에 비해 더욱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칭적이다' '안정감 있다', '시원스럽다' 등의 어휘는 외부의 결과와는 다르게 한국에 이어 일본이 중국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차이점을 나타

내었다. 즉, 외부에서는 중국 궁궐 건축의 거대한 웅장함으로 인해 중국이 일본에 비해 좀더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내부에서는 일본 내부의 수직, 수평으로 이루어진 선적 구성의 배치로 인해 일본의 내부가 중국에 비해 좀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아하다', '담백하다', '직선적이다' 등의 어휘에서는 대체적으로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일본 궁궐 건축의 내부 모습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단아하고, 담백하며, 직선적인 것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부 이미지 표현 어휘는 '화려하다' '단아하다', '담백하다'의 화려함과 단순성 차원의 어휘와 '대칭적이다', '안정감있다'의 안정감 차원의 어휘, '여성적이다', '곡선적이다'의 여성성 차원의 어휘들에서 대체적으로 큰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외부에서 화려함과 단순성의 장식성 차원의 어휘들이 다른 어휘들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점에 비해, 내부에서는 장식성 차원의 어휘외에도 안정감과 여성성 차원의 어휘들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한·중·일 궁궐 건축 내부 이미지 표현어휘 차이의 윤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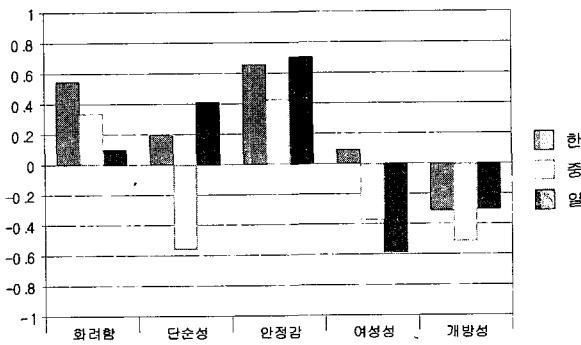


이러한 이미지 어휘별 평균 비교를 바탕으로, 요인별 평균의 점수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내부의 경우 화려함(F=10.076, p<.05), 단순성(F=49.647, p<.05), 안정감(F=6.615, p<.05), 여성성(F=26.358, p<.05), 개방성(F=3.232, p<.05)의 모든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p<.05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화려함, 단순성, 안정감, 여성성, 개방성의 요인에 대해서는 Duncan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려함에 있어서는 한국>중국>일본의 순으로 한국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궁궐 건축의 내부 모습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단순성에 있어서는 일본>한국>중국의 순으로 일본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감에 있어서는 한국>일본>중국의 순으로 한국과 일본의 평균이 중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의 안정감 차원이 한국>중국>일본의 순으로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비해 더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점과는 다르게 내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비해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여성성에 있어서는 화려함과 마찬가지로 한국>중국>일본의 순으로 한국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곡선적 특성이 여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궁궐 건축의 내부 이미지가 화려함과 여성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방성에 있어서도 안정감과 마찬가지로 한국=일본>중국의 순으로 한국과 일본의 평균이 중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에서 개방성이 삼국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인식되었던 점과는 다르게 내부에서는 중국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내부가 좀 더 개방적인 것으로 인식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는 안정감과 개방성이 한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이미지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4-4] 한·중·일 궁궐 건축의 내부 이미지 평가 차원의 평균 점수



## 5.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한·중·일 궁궐 건축의 대표적인 이미지 표현 어휘는 장식성, 안정감, 개방성, 선적특성, 비친근성, 여성성 등 크게 6가지 요인구조로 나타났다. 외부의 경우 화려함과 단순성이 하나의 장식성의 요인구조로 파악된 반면, 내부에서는 화려함과 단순성이 다른 구조로 파악되어 내부를 볼 때는 화려함과 단순함이 서로 반대된 개념이기보다 각기 다른 차원의 뉘앙스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인의 구조는 나라에 상관없이 각 요인에 포함된 어휘들이 비친근성, 선적특성, 여성성을 제외하면 거의 유사한 양상을 띄우고 있었으나, 외부와 내부 별로 요인이 나타난 순서에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외부와 내부 별로 사람들이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한·중·일 삼국 궁궐 건축의 외부 모습을 인식함에 있어,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대칭적이며, 안정감있고 곡선적인 것으로, 중국은 일본과 한국에 비해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웅장하고, 복잡하며, 강렬함과 함께 직선적인 것으로,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단순하며, 간결하고, 담백하며, 단아함과 함께 차가운 느낌으로 인식하였다.

즉, 이는 한국 궁궐 건축의 대표적인 외부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곡선적 특성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 궁궐 건축의 대표적인 외부 이미지는 장식성과 직선적 특성의 차원으로, 일본 궁궐 건축의 대표적인 외부 이미지는 단순성의 차원과 함께 거리감이 느껴지는 비친근성의 차원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한·중·일 삼국 궁궐 건축의 내부 모습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삼국이 공통적으로 내부의 모습을 웅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는 궁궐 건축이 주는 위계성과 거대한 중량감이 외부와 함께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비해 외부와 내부에서 화려함이 주요 이미지 특성으로 인식되었으며, 일본은 외부와 함께 내부 역시 단순성을 주요 이미지 특성으로 인식하였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궁궐의 내부 모습을 화려하고, 안정감있으며 여성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한국 궁궐 건축의 대표적인 내부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화려함, 안정감, 여성성의 차원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화려함은 외부에서 중국 궁궐 건축이 한국에 비해 화려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여성성에 있어서는 한국의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곡선적 특성이 중국과 일본의 직선적 특성에 비해, 여성성을 의미한다고 파악된다.

중국은 일본에 비해 궁궐의 내부 모습을 한국과 동일하게 화려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일본보다 외부와 내부에 있어 모두 화려함이 주요 이미지 특성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 궁궐 내부에서 느껴지는 화려함의 특성은 한국의 경우 여성성의 측면에서, 중국의 경우 남성적이며, 웅장한 측면에서 인식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비해서는 중국과 일본이 궁궐의 내부 모습을 직선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궁궐 내부는 곡선적 특성으로 느껴지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직선적 특성으로 느껴짐을 의미한다. 즉, 중국 궁궐 건축의 대표적인 내부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화려함과 직선적 특성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궁궐의 내부 모습을 단아하고 담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외부에서도 보여지는 바 일본의 주요 이미지 특성이 단순성을 재확인 시켜주는 결과이다. 또한 한국과 동일하게 내부의 모습을 안정감있으며, 대칭적이며, 시원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안정감과 개방성이 한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이미지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일본 궁궐 건축의 대표적인 내부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단순성, 안정감, 개방성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삼국의 공통적인 이미지 특성은 선적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한국은 직선보다는 곡선적인 특성이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곡선보다는 직선적인 특성이 주요한 선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한·중·일 궁궐 건축의 공통적인 이미지 특성과 함께 차별성을 살펴보자면, 한국의 경우 외부 이미지 특성으로는 안정감, 곡선적 특성을 나타내었고, 내부 이미지 특성으로는 화려함, 안정감, 여성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한국의 이미지 특성으로는 안정감, 곡선적 특성, 여성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외부와 내부의 이미지 특성으로 장식성과 함께 직선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중국의 이미지 특성으로는 장식성, 직선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외부 이미지 특성으로는 단순성과 함께 거리감이 느껴지는 비친근성을 나타내었고, 내부 이미지 특성으로는 단순성, 직선적 특성, 안정감, 개방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일본의 이미지 특성으로는 단순성, 비친근성, 개방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일 삼국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국 고유의 이미지 특성을 규명함에 있어 궁궐의 외부와 내부에서 모두 나타난 안정감과 곡선적 특성을 한국의 주요 이미지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한·중·일 궁궐 건축의 외부와 내부 모습을 통해 삼국의 주요 이미지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인접한 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 삼국의 이미지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볼 수 있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지리적인 영향과 문화적인 면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문화권에서 중간적, 매개적 문화의 입장으로 평가되었던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 김동현, 서울의 궁궐건축, 시공사, 2002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 김춘일, 박남희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1
- 러우칭시, 이주노 옮김, 중국고건축기행1, 컬쳐라인, 2002
- 박영순, 이현주, 색채와 디자인, 교문사, 1998
- 신성영, 건축의장론, 구미서관, 2004
-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이무희 외, 일본 건축사, 세진사, 1995
- 주남철, '한국전통건축에 나타난 미적 특징, 미의식, 미학사상', 한국미학시론,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 太田博太郎, 박언곤 옮김, 일본 건축사, 발언, 1994
- 토마스 먼로, 동양미학, 열화당, 2002
- 권영걸, 한·중·일 전통공간에서의 조형정신과 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안지윤, 한국과 일본 전통 주택의 조형성에 대한 의식조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현정, 전통궁궐 건축을 통해 본 한·중·일 의장문화 비교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3
- 김홍석, 한·중·일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아시아 연구. 제15집. 부산대학교 아시아 문제연구소, 1997
- 박영순, 개린, 실내환경의 색채의미 평가를 위한 도구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1992
- 이순종, 한국 전통 조형미의 가치체계 및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국민대조형논총 16, 1997
- 통상산업부, 한국 색채.형.문양특성에 관한 연구, 3차년도 최종 보고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1995